

# 1년 지나 유해 발견...“제주항공 참사 수습 부실”

###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 공식 사과 “사고 원인 규명 끝까지 책임” 밝혀 유가족 “부실 조사 책임자 문책”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초기 수습 부실 비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지셨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최근 참사 잔해물 재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작업을 통해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발견됐다. 이 중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발견된 건 희생자 중 한 명의 정강이뼈로 파악됐다. 나머지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골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4개와 대형 봉투 68개 분량의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 부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참사 직후 정부는 현장 수습에 힘을 쏟았지만,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닿을 만큼 세심하지 못했다. 당연히 더 꼼꼼히 챙겨야 했다”며 “남아 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의 사과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참사 이후 그토록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노지에 방치됐던 진실이 이제야 그 처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유류품과 기체 잔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살점이었던 유해가 수습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에 파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했다. 이어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열변했다.

기자회견 후 김 장관의 사과를 접한 유가족협의회는 “내용도 부실하고 뒤늦은 사과에 개탄스럽다. 이번 사고는 국토부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인재영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초기 수습 실패와 국가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대, 80억 투입 ‘청년 진로·취업’ 돕는다

### 고용부 사업 선정...5년간 추진

### 졸업생 상담·프로그램도 제공

전남대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아우르는 통합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중심으로 학생들이 진로 상담, 취업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채용 정보 제공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의 진로·취업 준비 수준을 학년과 준비도에 따라 단계화해 지원한다.

저학년 대상 ‘빌드업(Build-up)’ 단계에서는 자기 이해와 강점 진단을 기반으로 진로 방향 설정과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을 돕는다.

고학년 대상 ‘점프업(Jump-up)’ 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취업 준비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후

학교 지원 체계에서 이탈하기 쉬운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기간, 경력 공백, 희망 직무 적합도 등 개인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 연계를 확대해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찬진 진로취업본부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아우르는 통합 고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청년의 재학·졸업·취업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생 선발

### 130여명에 3억9천만원 지원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9일 “아동복지시설 학생과 사회적 배려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은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미래인재 육성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130여명의 학생에게 3억 9천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학교와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학생을 추천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초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분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정서·심리 및 신체 치료·치유를 제공한다.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분야는 직업계고 학생 진로개발을 비롯해 대규모 대회 참가경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력 증진을 돕는다. /박선욱 기자

미래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전국 및 국제대회 참가 학생에게 대회 참가경비와 격려금을 지원한다.

김성진 이사장은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해질 18:36 🌙달돋이 00:27 달짐 10:07

####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11	장성	맑음	-3/10
목포	맑음	0/8	보성	맑음	-4/10
여수	맑음	1/11	함평	맑음	-4/9
나주	맑음	-4/11	순천	맑음	-1/12
완도	맑음	-1/11	영광	맑음	-3/8
구례	구름조금	-2/12	진도	맑음	1/8
강진	맑음	-3/11	흑산도	맑음	2/7
해남	맑음	-3/10	고흥	맑음	-3/11
광양	맑음	0/12	담양	맑음	-3/1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2.5	0.5-0.5
남부	면바다(북) 0.5-3.0	0.5-1.0
	면바다(남) 0.5-3.0	0.5-1.0
남해	앞바다 0.5-1.0	0.5-0.5
서부	면바다(동) 0.5-2.0	0.5-1.5
	면바다(서) 0.5-2.5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6:14	11:17	00:35	06:37	01:22	07:48
	17:56	23:17	12:26	18:31	13:06	19:33
		여수		녹동		

####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60** **세 차 6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6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 ●주간 날씨

11일(수)	12일(목)	13일(금)
☁(-1/13)	☀(1/14)	☀(2/15)
구름많음	맑음	맑음
14일(토)	15일(일)	16일(월)
☀(2/15)	☀(4/13)	☀(2/14)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2026 손재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